좋아함과 본받음

(고전4:14~21)

14.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16.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좋아함과 본받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받음.
좋아함과 본받음의 상호연관성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게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좋아하면 본받게 됩니다.
계속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이 경험적으로도 사실이에요.
학창시절에, 특히 사춘기 때 아주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마음에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고 본받게 됩니다.
또, 큰 바위 얼굴을 계속 보면서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의 위인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그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생김새의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 우리 이런 소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아함과 본받음의 상호연관성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좋아하면 본받게 된다, 이렇게만 흘러가면 예측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들들이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닮는다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나중에 보면 아버지하고 똑같아집니다.
저희 집도 저희 큰형님과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아버지 사이가, 막내아들인 저와 아버지 사이만큼 그렇게 돈독하지는 않았습니다.
삼형제 중에 제가 제일 아버지와 친했어요.
그런데 지금 겉모습도 그렇고 큰형님이 아버지와 제일 비슷하십니다, 성격도 그래요.
그거 이상하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본받지는 않습니다.
아! 이거 희한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영락교회에서의 경험.
한 경직 목사님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이 좋아하는 대상이 웃어른을 향할 때 우리는 존경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웃어른을 향할 때 좋아하는 것, 이게 존경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본받지 않습니다.
한 경직 목사님처럼 사는 분을 만나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법정스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십니다.
무소유를 주장하시고,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법정스님의 무소유정신을 본받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한 거지요?
왜 좋아합니까? 본받지 않는데? 아~ 이 참!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뜻 볼 때,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조금 감각이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내의 분파를 문제시하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그리고 더구나 그 분파들 중에는 바울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바울자신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은 조금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분파를 문제 삼고 분파 내에 바울파가 있는데, 바울 자신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다면,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파가 되라고 권면하는 좀 우스꽝스러운 말이 돼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바울파도 조차도 바울을 본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을 정식으로 본받았다면 바울파가 생길 수 없는 거지요.
바울을 본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파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영락교회에서 진짜로 한 경직 목사님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한 경직 목사님을 존경한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경직 목사님이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만을 따라서 산 인생이기에 그렇게 검소하실 수도 있었고,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을 본받는다고 할 때, 한 경직 목사님이 좋아하셨던 예수님을 따라서 좋아할 수 있을지언정, 한 경직 목사님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한 경직 목사님을 본받았다면, 한 경직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파가 생겼던 이유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좋아했고 궁극적으로 더 깊게 파헤쳐보면,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지, 바울을 본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 파조차, 바울 파조차.
차제에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내용도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같은 곳에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볼 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은 본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연합해야 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 화호유구(畵虎類狗)라는 말이 있어요.
화는 그림 화(畵)입니다, 호는 호랑이 호(虎)자, 호랑이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류는 종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리 류(類), 구는 개 구(狗)자에요,
그러니까 범을, 호랑이를 그린다는 것이 그만 개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지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소양과 자질이 없는 사람이 영웅호걸을 모방하려다가 오히려 경박하다는 평을 받게 된다는 뜻의 얘기입니다.
화호유구(畵虎類狗)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면, 불신앙적인 결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불교인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부처도 마른 똥 말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름에 놀아나지 말자, 우리 마음이 이름을 따라서 놀아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도 마른 똥 말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가, 우리가 부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를 들을 때처럼, 그렇게 꺼려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학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으로는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만물의 찌꺼기의 위치인 십자가, 바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인 신분의 위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과 연합하는 자만이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본받을 분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되는, 동일시해야 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에 연합할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공생애에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연합한 자들에게서만이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같은 본받음의 삶이 보여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가 우선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사람을 본받는 것이에요, 사람을.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본받을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좋아하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맥락에서 본받으라는 얘기는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왕 노릇, 고린도 교인들이 왕 노릇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왕 노릇은, 칭기즈칸이 왕 노릇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왕 노릇하고, 한 아버지가 집안에서 왕 노릇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왕 노릇은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의 왕 노릇은,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위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형, 그 십자

가형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날마다 반복했습니다.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에요, 우선.
날마다 만물의 찌끼가 되는 위치에서 죄도 없이 돌아가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본받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본받을 때에, 나름대로의 또 다른 방식의 왕 노릇이 나옵니다.

그 왕 노릇은 어떤 왕 노릇이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좋아서 사족을 못 쓰는 모든 가치들에 대해서 마음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죽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십자가에 걸려있는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십니다.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는 일이 나타납니다.
천국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천국이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만져지듯이, 느껴지듯이 내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왕 노릇이 나타나느냐?
세상의 가치들을 획득한 자로서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이긴 사람으로서의 왕 노릇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왕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는 자가 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왕 노릇은 돈을 가지려 하지 않고 돈을 이기려 합니다.
돈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걱정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교만이 생깁니다, 자기 의의가 충만해집니다, 내가 잘난 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이 없어서 생기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내 마음이 하늘로 만족해서 왕 노릇하고(돈을 이기면서), 돈이 많을 때는 전혀 그 돈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있는 돈에 대해 죽음으로써, 마음은 돈을 쓰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늘로 채워지면서 기쁘면서 돈을 이기는 동안에 또한 왕 노릇하게 됩니다.
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사족을 못 쓰는데, 모든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깁니다.
있음으로써, 쟁취함으로써, 소유함으로써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없다는 사실이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쁨을 가지므로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애인 사이를 중단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나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일주일이 넘도록 내 남자친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감지된다, 그러면 이미 그 남자친구에게 나는 애인이 아닙니다.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남자친구에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일주일을 안 보고도 남자친구가 멀쩡히 잘 아무 문제없이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애인이 아닌 것이지요, 이런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행복하게 살아서, 돈이 무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학벌이 없는데도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갖고 살면서, 학벌 많은 자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걸 본받으라는 얘기에요, 이런 식의 왕 노릇을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심지어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자주 언급하는 구절 아닙니까?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를 본받기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왕에게.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식으로 왕 노릇하지 말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왕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고군분투하지 말고, 나의 방식으로 왕 노릇하라,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한 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복음을 아주 훌륭하게 능력 있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책임이, 능력 있고 훌륭하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무리를 잘 져야 될 책임까지 뒤따릅니다.
이 책임을 못 지면 큰일 납니다.
내가 목사님으로서 복음을 잘 전했어요.
잘 전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내 목회가 실패하고 나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됩니다.
복음을 잘 전한 뒤에는, 잘 전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려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인의 마음속에 목사님 자신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부터 나도 망하고 목회도 망하고 교인도 망하게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쩌다가 설교를 잘했어요.
곽 선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 설교하는 중에 한 번 교인들의 마음을 제대로 딱 때리면 목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주 만에 한번 정말 히트 했어요, 시쳇말로.
교인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러면 설교 잘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교인도 망하고.

어떡하든지 목사님들이 마무리 잘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교인들 마음속에 설교를 잘한 내가 들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설교를 진짜 잘했다면, 설교 속에서 소개된 십자가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주저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맑은 표정으로, 거리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그런 표정으로, '나 목사님 팬이에요'
이거는 목사님 나하고 죽읍시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일봉도 주시고, 철따라 과일도 사다 주시고, 명절이 되면 고기도 사주시고,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아낍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그만큼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목사인 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숱하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게 보이니까 양심적으로 그 상태를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시간에 맨날, '목사는 만물의 찌꺼기다'라고 하는 얘기를 노래처럼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에게,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좋아하라고 하니까 쌀쌀맞다 그럽니다, 목사가 쌀쌀맞고, 사람이 성품이 고약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잘해주신 분들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지금도 고마워요.

그런데 목사는, 교인들이 나를 담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담듯이, 나를 본받아서 그들도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의 주님을 담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나를 안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나를 좋아하는 것은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안 좋아하면, 그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안 좋아하는 저 사람도 예수님은 좋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다 그 교인의 마음에 상처까지 줘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좋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을 때에,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낳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낳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있다가 다른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게 낳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을 획득하려 하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들을 이기면서 살려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얘기에요.
그게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에요.
십자가 복음이 뭐에요?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걸 얻으려는 마음이 죽는 거지요, 획득하려는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돈을 이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돈이 이미 있어 버리면, 참으로 돈을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돈에 먹혀버린 상태이기가 십중팔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내가 어떤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돈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복음에 의해서 낳아진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걱정이 생길 때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돈이 없어서 생기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하늘로 채워질 때까지 십자가 붙잡고 돈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겠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자로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늘로 충만해져서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우리 같은 보잘 것 없는 천한 것들이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에요.
기도하는 노력,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노력, 그래서 내 마음이 채워져서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나가 사는 것, 이러기 위해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교만을 떠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 사도 바울에게서 능력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다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적인 왕 노릇, 교만을 떨게 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고, 배고프다 그래서 거지처럼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걸 능력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때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다?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라?
사도 바울을 좋아하지 말고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함으로써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왕 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를 본받자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을 좋아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세상의 가치를 획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세상의 가치를 이기는 왕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